

진격의 일학개미... 日주식 보관액 40억弗 넘었다

2024.03.06 17:50 매일경제

- +

국내 투자자 일본 주식 보관 금액 · 닛케이225(단위=백만달러)



일본 증시가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일본 주식 규모가 역대 최대치에 다다랐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 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일학개미'가 보유한 금액도 함께 뚝 모양새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보관 금액 규모는 40억4만 달러(약 5조3400억원)로 증권정보포털이 공개된 2011년 이후 최초로 40억달러 고지를 넘었다.

2014년만 하더라도 연말 기준 일본 주식 보관 금액은 10억 9392만달러였으나 불과 10여 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일본 주식 규모는 2022년 말 26억1109만달러에서 2023년 말 들어 37억3857만달러까지 증가한 뒤 두 달여 만에 사상 최대치에 도달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금액뿐만 아니라 일본 주식을 거래한 금액 역시 지난달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국내 투자자가 일본 증시에서 거래한 금액은 총 7억7448만달러(약 1조336억원)로 한 달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월간 거래액은 3억51만달러로 집계된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늘어 지난 1월 6억 6601만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달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일학개미가 일본 증시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인 상품은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였다.

지난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일본 증시에서 국내 투자자 순매수 1위 상품은 '아이세어스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로 나타났다.

순매수 2위에 오른 상품 역시 '아이세어스 코어 7~10년 미국 국채 엔화 헤지 ETF'였다. 일학개미는 엔저 국면에서 환차익을 노리고 일본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4만 선에 올라선 닛케이 지수는 3일 연속 4만 선을 유지했다. 이날 닛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0.02% 떨어진 4만 90.78에 마감했다. 일본 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은 모습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가 빠졌을 때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당분간 중국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본에 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엔저 현상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일본 증시는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 증권가에서는 일본은행(BOJ)이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세키 히로유키 미쓰비시UFJ파이낸셜 글로벌 시장 대표는 "BOJ가 오는 18~19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기준금리 종료(금리 인상)를 선언할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스왑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50%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본 주요 기업 봄철 노사임금 협상인 춘투 결과 임금 인상률이 4%를 넘기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부각되기 때문에 BOJ가 이를 명분 삼아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끝낼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춘투 결과는 오는 15일께 나온다.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으로선 부담 요인이다. 세키 대표는 "BOJ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면 일본 국채·외환 시장을 통틀어 1096조엔(약 9769조원) 규모의 자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석 기자 / 김인오 기자]